

세계 한인체육회장단 익산 방문

전국체전 경기장 현장 답사·선수단 숙소 방문 등 일정 진행

2018년 전국(장애인)체전에 참가하는 한인체육 대표인 세계한인체육회총연합회 임원진 및 관계자 50명은 27일 오후 10월 제99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38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열리는 익산시를 방문했다.

시에 따르면 세계한인체육회총연합회는 미, 중, 일 등 총 18개국에 지부를 두고 대한민국 체육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한인체육회 회장단체로 해당 국가에서 전국체육대회 참가 및 고국 선수단 지원, 민간

이고 등에 이바지하고 있다.

이번 방문은 올해 재외한인 대표로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 참가를 위해 사전에 현지를 답사해보는 취지로 마련되었으며 개·폐회식이 치러지는 익산종합운동장 리모델링 현장과 해외동포 선수단 숙소로 예정된 구원광보전대학교 기숙사를 돌아보고 익산시장 권한대행 김철모 부시장 이 배운 오찬에 참석하여 고국의 따뜻한 정을 나누고 10월에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고 돌아갔다.

세계한인체육회총연합회 윤만영 회장은 "전국체전을 통해 재외한인 체육단체의 존재를 국내에 알리고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하고, 성공적인 체전을 위해 우리 선수단을 최대한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철모 익산시장 권한대행은 "올해 전국체전에 1천5백여 명의 해외동포 선수단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단계적으로 분야별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세계한인체육회장단과 상시 협의 체널을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추진 상황을 점검·보완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99회 전국체전(2018. 10. 12.~18.)과 제38회 전국장애인체전(2018. 10. 25.~29.)은 주 개최지인 익산종합운동장에서 개·폐회식을 갖고 익산시를 포함 14개시·군 70개 경기장에서 분산하여 경기를 치른다.

/익산=장양원 기자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시정 구현

군산시, 어린이의회 아카데미 개최

군산시는 올해 새롭게 선발된 어린이 의원들을 대상으로 2018년 어린이의회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지난 28일 근대역사박물관 규장각실에서 열린 아카데미는 2018년 한 해 동안 군산시 어린이·청소년의회를 이끌어갈 의원으로서의 역량과 자질을 갖추도록 교육해 어린이행복도시 군산의 바람직한 비전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또 아동권리 기본교육 및 어린이 민주주의와 참여에 대한 이해과정 등을 운영해 어린이 의원으로서 향후 정책참여 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지식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며 어린이의원 스스로가 지역사회의 의사결정 주체로서 당당히 목소리를 내고 논리적으로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전문 리더십 및 스피치 교육도 함께 진행했다.

최성근 어린이행복과장은 "어린이의회는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시정을 구현하고 어린이가 권리의 주체로서 아동친화적 지역사회를 조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이번에 실시한 어린이의회 아카데미를 통해 민주시민 의식 함양은 물론 미래의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어린이의회는 4월 28일 어린이의회 아카데미를 시작으로 5월 12일에는 청소년의회 아카데미가 개최될 예정이며 6월부터는 본격적으로 3개의 상임위원회(교육, 복지, 안전)를 구성해 매월 1회 이상 정기회 또는 임시회를 통해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보장을 위한 활동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군산=김정훈 기자



정현을 익산시장 예비후보 "남북회담, 평화 결실 맺길"

민주평화당 정현을 익산시장 예비후보(정 후보)는 27일 열린 남북정상회담과 향후 평화의 결실을 맺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정 후보는 "오늘 남북 정상이 군사분계선 위에서 악수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시민들이 벅찬 감동을 느꼈을 것이다"며 "이젠 갈등과 불신의 벽이 무너지고 한반도에 따뜻한 봄바람이 불고 있다"고 환영 입장을 피력했다.

정 후보는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남과 북이 화해와 협력의 상생관계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남북 평화의 시대가 열린다면 한민족은 세계로 비상할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될 것이다. 남과 북의 경제 발전과 공동 번영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 후보는 "저는 오는 10월 익산에서 개최되는 전국(장애인)체전에 북한 팀을 초청해 세계평화축제로 승화시키고 제안하 바 있다. 체전의 북한 팀 참가는 얼마든지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세계 민약 다시 시정 운영의 기회가 주어진다 시민들의 공감대 속에 북한과의 교류 및 협력 사업의 활성화, 평화의 시대를 이어가는데 익산시의 역할을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 시간여행마을 새 관광콘텐츠 개발 추진

시, 현장간부회의 개최... 근대항만역사관·야간경관 사업 의견 제시

군산시가 최근 들어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시간여행마을 일원을 새롭게 탈바꿈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27일 시에 따르면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기억 속에 군산시간여행마을을 오랫동안 남기고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한 현장간부회의가 내항 일원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문동신 시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20여명은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내항 일원을 찾아 그 일대에서 추진되는 주요 사업에 대한 해당부서장

의 보고를 듣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올해 타당성 조사용역이 진행되는 근대항만역사관이 내항 랜드마크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60m 이상의 높이로 설치되어야 한다는 점과 오는 5월 개장되는 푸드 트레일러 사업시기에 맞춰 내항 주변의 환경을 개선하고 야간경관 사업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문동신 시장은 "군산시간여행마을 일원에서 추진되는 각 사업간 유기적

인 연계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발전적 방향을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며 "지역 경기가 어려울수록 군산을 찾는 관광객에게 감동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문 시장 일행은 내항 일원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현장회의 참석에 앞서 오는 5월 4일부터 개최되는 풍담보리축제 현장을 찾아 행사장 주변 환경정비뿐만 아니라 주차 시설 점검 등 대회준비의 전반적인 상황을 꼼꼼히 챙겼다.

/군산=김정훈 기자

사랑나눔 저금통 배부 캠페인 익산 중앙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익산시 중앙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복지사각지대 없는 동네를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27일 자체 제작한 저금통 300개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직접 관내 기관 및 상가를 방문해 배부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모금된 저금통의 성금은 연말에 회수해서 도움이 필요한 중앙동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소중하게 쓰일 예정이며 수시로 발굴된 복지사각지대 대상자에게는 공격 지원 및 민간자원의 연계 등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은 중앙동 관내 관공서, 은행, 병원, 학교, 상가,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에 저금통을 전달하면서 주위의 어려운 이웃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이웃을 발견할 경우 맞춤형복지에 적극적으로 연락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사랑나눔 저금통은 정기적인 지원이 어려운 후원자들이 소액으로 손쉽게 나눔과 이웃사랑 실천을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라면서 상인 및 주민들이 흔쾌히 참여를 희망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원광대병원, 전주병원·호성전주병원과 상호협력체계 구축 협약 체결

원광대병원(병원장 최두영)은 지난 26일 병원 내 문화센터 5층 회의실에서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병원장 임신호)·호성전주병원(의료원장 김중준)과 상호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원광대병원 최두영 병원장과 김중준 행정처장,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임신호 병원장과 양 기관의 관계자 등이 참석해 환자들의

진료의뢰, 회송, 전원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위한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교육, 연구 분야 및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공유하기로 협약했다./익산=장양원 기자

그림자 조명으로 양대체전 적극 홍보

익산시, 삼성동행정복지센터 등 주요 거점 4곳 설치

익산시는 최근 2018 전국체전·장애인체전의 성공적인 개최와 시민뿐만 아니라 익산을 찾는 방문객에게도 양대체전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 삼성동 행정복지센터 등 주요 거점 4곳에 그림자 조명을 추가 설치했다.

어둠이 내려앉고 가로등이 켜질 때 쯤 삼성동행정복지센터, 배산공원, 모현도서관, 마동 풍성제과 근처에는 서동선화 이미지와 전국체전 표어 공모전 최우수작인 '천년술결 익산에서 하나되는 2018전국체전'과 '서동선화와 함께하는 2018전국체전 익산'의 양대체전 홍보문구가 빛의 시각적 표현으로 도로 바닥에 나타난다.

시 관계자는 "전국체전 성공기원을 위해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 등 화합의 장을 바라는 마음으로 양대체전을 조명으로 홍보하게 되었고 오는 7월까지 시민들의 반응과 의견을 참고하여 양대체전을 홍보할 4곳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시민에게 응원, 희망 등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림자 조명을 익산역, 학원가, 시청 등 7곳에 설치한 바 있고 이번에 추가 설치되는 8곳은 양대체전 종료 후 장소와 특성 및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재미와 활력을 주고 시민과 소통하는 문구로 교체할 예정이다./익산=장양원 기자

어린이와 시민 모두 행복한 도시 군산!
 풍부한 문화 콘텐츠 근대 역사 문화도시!
 동북아 산업과 관광의 허브 군산·새만금!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다!!

Dream Hub GUNSAN
 GUNSAN CITY